

글로벌 ICT 주간동향리포트

정책/규제

프로젝트/투자

인기기술/인기제품

신기술/신제품

ICT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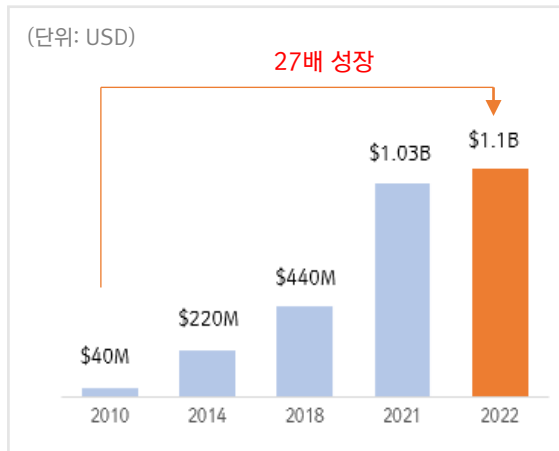
필리핀 스타트업 생태계 및 투자유치 현황



필리핀, 2022년 11억 달러 규모 스타트업 자금 확보

필리핀의 벤처캐피탈 펀드인 폭스몬트캐피탈파트너스(Foxmont Capital Partners)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함께 '필리핀 벤처캐피탈 보고서 2023'을 발표하였음. 필리핀은 2022년에 11억 달러(약 1조 4,091억 원)의 스타트업 자금을 유치하여 2021년 조달 총액인 10억 3,000만 달러(약 1조 3,192억 원)를 넘어섰음. 필리핀 스타트업은 2년 연속 10억 달러(약 1조 2,808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함. 스타트업 생태계 초기 형성 단계였던 2010년에 투자된 4,000만 달러(약 512억 원)와 비교하면 연간 총 거래액이 불과 12년 만에 27배 성장하는 성과를 보임

[필리핀 스타트업 투자 현황]



(*) 출처 - 필리핀벤처캐피탈보고서 2023

2021년은 팬데믹 이후 급성장한 유망 기업에 투자하려는 자금이 몰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해임.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3만 1,526건의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총 7,942억 달러(약 1,016조 5,760억 원)의 자금이 조달되었음. 2022년 글로벌 벤처캐피탈 투자는 전년 대비 37% 감소하였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7% 감소하였음. 그러나 세계적으로 투자가 둔화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전년 대비 7% 성장하며 뛰어난 잠재력을 보여주었음

필리핀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동인

필리핀은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음. 젊은 인구와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가 필리핀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필리핀 인구의 평균 연령은 25세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임. 2022년 필리핀의 인터넷 보급률은 75%로 2020년 대비 5% 신장하였음. 이는 세계 평균 63% 대비 12% 높은 수치임. 또한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10시간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긴 시간을 사용함. 필리핀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48%는 비용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함. 필리핀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4년간 약 1,200만 명이 증가하여 7,410만 명으로 인구가 2배인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수준임

필리핀의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앱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2020년 30억 달러(약 3조 8,250억 원) 규모이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2년 140억 달러(약 17조 9,760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음. 팬데믹 기간 동안 필리핀 쇼핑객의 구매 건수는 57% 증가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임. 2022년 필리핀은 전자상거래 상품의 평균 매출을 1인당 GDP로 환산했을 때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1인당 GDP 대비 10.54%로 전 세계 평균 6.51%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또한 필리핀에서는 디지털 금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2022년 필리핀의 온라인 은행 거래액은 1조 3,310억 달러(약 1,710조 3,350억 원)로 2021년 필리핀 GDP의 3배에 달했음. 2022년 전자 지갑 거래는 286억 달러(약 36조 7,510억 원)로 2020년의 2배 규모로 성장하였음. 필리핀 인구의 24%만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필리핀 인구의 36%가 전자 지갑인 Gcash 사용자임

금융 서비스와 온라인 쇼핑 부문 주목

필리핀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는 시장의 비효율성과 충족되지 않은 니즈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 시장임.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 측면에서 대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을 위해 신용 관련 데이터 공급, 온라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스코어(FinScore), 렌도(Lenddo), 홈크레딧(Home Credit), 아툼(atome)과 같은 업체가 주목받고 있음. 또한, 편리한 지불 솔루션을 제공하는페이망고(PayMango), 드레곤페이(dragon pay) 등의 업체는 신용카드, 전자지갑, 현금, 은행 송금 등 각종 결제 방법을 연동하여 인기를 끌고 있음. 이외에도 복잡한 금융 서비스의 충족되지 못한 니즈를 해결해주는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가 등장함. 디지털 बैं킹 서비스인 토닉(tonik), 마야(maya) 및 필리핀의 이동통신사인 글로브(Globe)가 운영하는 전자지갑 서비스인 G캐쉬(Gcash)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음

필리핀의 전통적인 동네 슈퍼마켓인 사리사리(SARI-SARI)는 2022년 기준 일용소비재(FMCG) 거래의 41%를 차지하는 중요한 매장임. 사리사리와 같은 작은 규모의 소매점을 지원하는 B2B 디지털 쇼핑 플랫폼 그로스리(growsari), 팩웍스(packworks)와 같은 서비스 제공 업체가 주목받고 있음

성숙해지는 필리핀 스타트업 생태계

필리핀은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59위를 차지하였으며, 비즈니스 정교함 부문 39위, 지식 및 기술 개발 부문에서 41위를 차지하였음. 필리핀의 성과는 발전 수준(중하위 소득 국가)을 감안할 때 기대 이상으로 평가됨

폭스몬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필리핀은 1분기에 17건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확정했으며, 분기가 끝나기 전에 이 숫자는 23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보고서는 500만 달러(약 64억 원) 미만의 투자가 여전히 거래 건수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 스타트업 시장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민첩하고 신선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함. 또한, 후기 자금 조달 라운드의 투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필리핀 스타트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함

글로벌 거시 경제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스타트업 생태계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디지털화의 증가, 고급 인재 확보, 현지 및 글로벌 투자자의 확대가 영향을 끼칠 것임. 필리핀과 같은 신흥시장에서는 스타트업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양질의 의료서비스, 교육, 낮은 품질의 식품 등 필리핀의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 ESQUIRE(esquiremag.ph), Philippine Startups Raise Over \$1 Billion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According..., 2023년 3월 22일
- FOXMONT CAPITAL PARTNERS(foxmontcapital.com), Philippine Venture Capital Report 2023
- Nikkei Asia(asia.nikkei.com), Philippines, Malaysia emerge as startup hot spots, says investor, 2023년 2월 28일
- Deal Street Asia(dealstreetasia.com), At least seven regional VCs made their first investment in Philippines in 2022년 3월 22일
- ABS CBN NEWS(news.abs-cbn.com), Venture capital firm bullish about PH startup scene, 2023년 3월 22일
- ESQUIRE(esquiremag.ph), Philippines' Top Investors and Founders to Gather for Year Two of BUILD..., 2023년 3월 10일